

## 중국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연구\*

김동하\*\*

###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계층 분류와 인구 구조
3. 중국의 고령화와 양로 체계
4.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5. 결론

### 【초록】

2021년 중국 고령화율(65세 이상)은 14.2%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32년간 견지했던 산아제한(1가정 1자녀) 정책을 2021년에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노동인구 100명당 노인부양비율은 21.1로 급등하고 있다. 조사 결과, 양로에 대한 부모·자식 세대간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생자 부모 38.45%, 비독생자 부모 46.35%는 양로가 자녀책임이라고 했으나, 자녀의 76.65%는 본인들 책임으로 꼽았다. 독생자녀를 둔 부모의 66.1%가 사구양로(재택양로)를 선택했으나, 다자녀 가정 부모 70%는 가정양로를 선택했다. 분석 결과, 결혼 후 무자녀 혹은 둘째를 낳지 않을 경우, 중국 양로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키워드】 중국, 노인, 양로, 고령화, 인구구조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dhkim@bufs.ac.kr)

## 1.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방법

중국 고령화율은 14.2%(65세 이상, 2021년)이며 생산연령인구는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UN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14%)를 넘어 고령사회(14~20%)로 진입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1년말 전국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명으로 전체 인구 18.9%를 차지한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74.8세에서 78.2세로 3.4년 늘어났다. 반면 2021년 신생아 수는 1062만명으로 5년 전보다 821만명이나 줄어들며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 2011년을 기점으로 32년간 견지해왔던 산아제한(1가정 1자녀) 정책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한 후, 2021년에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노동인구 100명당 65세 인구비율인 노인부양비율을 보면 2014년 14.3이 었으나, 2021년에는 21.1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소위 중국에서는 ‘421가정’, 즉 본가 및 외가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을 1명의 독생자녀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부모와 자식 세대간 인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배경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중국의 계층 분류와 인구구조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중국의 고령화와 양로 체계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와 자녀 세대간 인식 차이를 도출했다. 먼저 부모들의 인식은 기존 연구문헌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자녀들의 인식은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바링허우(‘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90년대 출생자), 링링허우(2000년대 출생자)에 속한 334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이를 종합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선행 연구

중국의 계층별 특성에 관한 연구는 형요 외(2015)<sup>1)</sup>가 있는데, 동북지역 바링허우

1) 형요·원재연, 「동북지역출신 바링허우세대에 대한 사례연구」, 『중국학논총』, 49집, 2015.08, pp.315-344.

세대에 대해 분석했다. '80년대 이후 세대는 성숙함, 겸손, 책임감이 없는 버릇없는 세대 또한 개인주의적인 위험 감수자로 간주된다. 이들은 한 자녀 정책의 산물로 고등교육 등록 확대의 혜택을 받았다. 분석대상인 동북지역은 남부연해지역과 비교했을 때,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와 연관된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주링허우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이동훈(2012)<sup>2)</sup>이 있으며, 진남 외(2010)<sup>3)</sup>는 중국 내 주택문제가 바링허우 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장로 외(2009)<sup>4)</sup>는 귀차오(国潮)라 불리는 국산품 애용 현상과 바링허우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국내 관련 논문 대부분은 소비 분야에 집중되어 송가 외(2012)<sup>5)</sup>, 왕면 외(2019)<sup>6)</sup>, 이웅철(2011)<sup>7)</sup>, 홍은실 외(2020)<sup>8)</sup>, 양정 외(2021)<sup>9)</sup>, 박현재(2017)<sup>10)</sup>, 박상수(2014)<sup>11)</sup> 외 등이 있다. 윤성환(2018)<sup>12)</sup>은 국가 및 기업이미지, 기능 속성 및 브랜드개성이 치링허우·바링허우·주링허우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링허우 소비자들이 치링허우·바링허우에 비해 한국제품 구입 시 국가이미지와 브랜드개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또한 이들은 한국제품 구입 시 상징적·행태적 기업이미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능적 속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중국 노인,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관련 논문 중 이성기 외(2013)<sup>13)</sup>는 농촌양로보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으로 무각출연금을 들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개

- 2) 이동훈, 「중국 80後, 90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산짜이(山寨) 문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38집, 2012.01, pp.123-136.
- 3) 진남·김창경, 「중국 '팡누(房奴)' 주거현상의 요인과 특징에 대한 연구 - 바링허우 세대 팡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4집, 2010.09, pp.339-357.
- 4) 이장로·정인식·김미옥, 「소비자 자국중심주의와 적개심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80후(後)'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34권5호, 2009.11, pp.43-75.
- 5) 송가·김재환·이상엽, 「중국 바링허우(80後) 이선도시(二線都市) 아파트 선택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1권, 2012.12, pp.265-277.
- 6) 왕면·이희승·양웨이웨이, 「중국 바링허우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호텔선택속성 및 충성도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23권3호, 2019.05, pp.479-495.
- 7) 이웅철, 「상하이(上海) 화이트칼라 '바링허우(80後)'의 소비행위와 태도: 소비의 사회적 속성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44권2호, 2011.05, pp.139-177.
- 8) 홍은실·복미정, 「중국 주링허우 세대 소비자의 역직구 특성분석: 상표충성성향과 다양성추구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 분류에 의하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6권4호, 2020.12, pp.77-99.
- 9) 양정·하종경·이영숙, 「중국의 위챗 플랫폼 특성에 따른 패션제품 구매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76집, 2021.07, pp.347-362.
- 10) 박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재구매의도 결정요인: 조링허우(90後)를 대상으로」, 『무역학회지』, 42권1호, 2017.02, pp.125-139.
- 11) 박상수·위엔후이, 「모바일 뱅킹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80後세대와 90後세대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2권4호, 2014.10, pp.135-154.
- 12) 윤성환, 「치링허우(70后), 빠링허우(80后), 주링허우(90后)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37권3호, 2018.12, pp.5-49.
- 13) 이성기·원석조, 「중국 농촌양로보험개혁의 과정과 과제」,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2013, pp.85-120.

선과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을 모델로 한 제도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김병철(2010)<sup>14)</sup>은 양로보험을 중심으로 중국의 노인복지제도를 시기별, 도시와 농촌별로 비교분석하여, 도시-농촌 이원화에 따른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혜정 외(2020)<sup>15)</sup>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차이를 비교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 중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한국보다 긍정적이며 노인에 대한 지식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보다 높았다. 권정호(2010)<sup>16)</sup>는 중국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중국 복지체계의 변화를 1995년에 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김상찬(2018)<sup>17)</sup>은 양로 문제중 요양간호제도를 중심으로 공적부양과 가족부양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적부양으로 분류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구서비스), 재택양로서비스, 시설양로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도시-농촌간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요양간호를 위한 농촌의료보장에 정부재정투입, 공적 요양간호시설 확대, 요양간호 자격제도 도입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박상수 외(2016)<sup>18)</sup>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의식에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30대가 정서적 및 신체적 노인부양의식, 체면 민감성 등에서 20대나 40대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결혼 후 아이 양육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노인부양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가족 친밀감도 노인부양 의식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 친밀감이 높을수록 경제적·정서적·신체적 노인부양의식이 높았다.

김복희 외(2021)<sup>19)</sup>는 한국 의료기관 또는 양로서비스 관련기업이 신규 진출 가능한 시장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 양로서비스의 정책, 수요자, 공급자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부권과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 재가양로서비스, 외자 양로서비스 직업훈련기관 등의 진출 방안을 도출했다. 김경환(2018)<sup>20)</sup> 역시 중국 양로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진출전략을 도출했다.

14) 김병철, 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비교: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1, pp.100-111.

15) 이혜정·모선희,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3호, 2020, pp.259-272.

16) 권정호,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와 도시지역 노인복지의 과제」, 『아시아연구』, 13권3호, 2010.10, pp.109-134.

17) 김상찬, 「중국의 노인부양과 요양간호제도」, 『국제법무』, 10집1호, 2018.5.30, pp.25-48.

18) 박상수·殷卓君, 「중국사회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67권, 2016.06, pp.275-298.

19) 김복희·서창배, 「중국 양로서비스시장과 수요공급적 특징분석」, 『중국지역연구』, 19호, 2021.05, pp.165-193.

20) 김경환, 「중국 양로시설 시장현황 및 진출전략」, 『중국학연구』, 84권, 2018.06, pp.219-238.

## 2. 중국의 계층 분류와 인구 구조

### 1) 계층 분류

세대(世代; Generation)라는 개념은 라틴어로 ‘낳다(Generāre)’라는 어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생물학의 생합성, 복제, 또는 출산으로 알려진 자손을 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Kertzer(1983)<sup>22)</sup>에 따르면 세대 개념은 네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족관계·친족계보에서의 위치를 따지는 용법으로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3세대 가정이다. 둘째, 생애주기 단계에서의 위치로 연령을 의미하는 명사와 세대 개념을 같이 사용한다. 셋째,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함께 생존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넷째, 상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동년배 집단을 강조하는 세대 개념이다. 또한 특정 기간 출생하여 인생발달 단계에 동일한 사건과 이벤트를 경험하여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sup>23)</sup>

본고에서 다루는 중국의 독생자녀 계층인 바링허우(80后, 19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90后, 1990년대 출생자), 링링허우(00后, 2000년대 출생자)는 단순히 연령상의 차이보다는 동일한 시대에 태어나 동일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경험하여 유사한 의식구조나 정서, 행동을 하는 동년배 집단을 의미한다.

#### (1) 바링허우

바링허우는 1979년 중국정부가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한 후에 태어난 1980년대(1980~1989년간 출생자)생을 가리킨다.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로 불릴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수혜자로 지난 30여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로운 환경에서 외동으로 자라난 ‘샤오황디(小皇帝)’ 1세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중국경제를 떠받치는 신흥 도시중산층 소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몸값이 수억 위안이 넘는 젊은 CEO의 탄생, 중국 최초 20대 최연소 시장 발탁 등으로 바링허우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중국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21) Wohl, Robert, *The generation of 191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22) David I.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pp.125-149.

23) 서용구·박명현, 『2030 미래에 답이 있다』, 이서원, 2014.

&lt;표1&gt; 중국의 계층별 성장 배경 및 특성

	연령 / 인구 및 비중	성장 배경 및 특성
치링허우 (70后)	43~52세 /2억 718만명 (1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8년 개혁개방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li> <li>•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60허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대담한 소비패턴</li> </ul>
바링허우 (80后)	33~42세 /2억 2315만명 (15.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세대의 어려운 시절을 보고 자라 전통적이며 개방적인 사고 보유 (첫번째 독생자녀 세대)</li> <li>• 시장경제가 시작된 시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li> <li>• 높은 소비성향을 지니며 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시작</li> <li>• 개성 및 유행추구, 감성적·충동적 소비, 광고효과에 민감</li> </ul>
주링허우 (90后)	23~32세 /1억 6678만명 (1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년기 때 시장경제를 접했고, 인터넷 발달로 외국문화에 익숙 (2001년 WTO 가입으로 고속경제 성장기 경험)</li> <li>• 핀테크 발달로 소비·대출 증가 및 금융상품 이용 재테크</li> <li>• 자아개성추구, 합리적·이성적 소비, 유행선도, SNS 구전효과</li> </ul>
링링허우 (00后)	13~22세 /1억 5794만명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 독생자녀 세대, 귀차오(중국산 소비) 열풍의 주역</li> <li>• 소비를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표현 (SNS 및 e-커머스)</li> <li>• 4G 스마트폰 세대, 본격 소비군(해외여행, 명품브랜드)</li> </ul>

주: 연령은 2022년 기준이며, 인구 비중은 2020년 중국 총인구 중 계층별 비중임.

자료: KIEP, 「90后의 주요 소비패턴 특징 및 시사점」, 북경사무소브리핑, 2016.02.29. 참고하여 보완.

바링허우라는 명칭은 우링허우(50后, 1950년대 출생자), 리우링허우(60后, 1960년대 출생자)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 특정 시기 출생한 연령대를 호칭하는 보통명사에 불과 했다. 이같은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바뀌게 된 것은 공샤오빙<sup>24)</sup>이 기점이다. 반면 바링허우가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내포한 세대별 계층의 고유명사로 국제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역시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인터넷 작가 춘수(春树) 때문이다.

TIME 매거진 아시아판 2004년 2월호에서 'New Radicals'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자유분방한 신세대 문학 작가들을 다루면서 바링허우를 대표하는 작가로 춘수를 꼽았다. 그녀는 1983년 베이징 태생으로 고교를 중퇴하고 인터넷소설 작가가 되었으며, 2002년에 베스트셀러로 부상한 '베이징와와(北京娃娃)'를 발표하게 된다. TIME 매거진은 커버 스토리에서 바링허우 작가들의 소개뿐만 아니라 바링허우들이 그들 세대의 젊은 작가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사회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들이 중국 사회에 일으켜온 작은 변화들을 다각적으로 부각시켜 문학계는 물론 중국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문학계에만 머물러 있던 바링허우, 즉 1980년대 이

24) 공샤오빙(恭小兵, 1982년생):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의 감옥 생활 중 수백편의 소설, 수필, 시가, 보도문 등을 썼다. 인터넷 소설 커뮤니티인 텐아이스터취에 자서전 소설 '우추커타오(无处可逃)'를 연재하여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2004년에 '우추커타오'를 대중문예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한 후, '바링허우 문학의 선도자(80后文学领袖)'로 인식이 되었다.

후 태어난 독생자녀들에 대한 중국정부, 학계, 언론 등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중국 국내외 주목을 받던 2004년을 기점으로 보면 바링허우 연령대는 15세부터 24세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에 불과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바링허우에 대한 심리적 특성은 외동자녀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자기중심적 사고, 사회 부적응, 사회에 대한 반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獨善)적 성향을 가진 것이다. 당시 바링허우의 또 다른 호칭은 링레이(另類) 즉 ‘별종’이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12일에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에서 나타난 바링허우의 자기희생적 자원봉사 활동은 기존 사회학적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면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대상으로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다. 25)

지진 발생 후 다음날부터 중국 각지에서 바링허우가 주축이 된 자원봉사자들이 무작정 쓰촨성으로 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구호소나 야외 학교를 차리고 부모를 잃거나 가족이 희생당한 재난민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다. 지진 발생 초기 약 6000여명에 달하는 바링허우 자원봉사자들이 정부나 기관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재난 현장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사회학자들은 바링허우가 기성세대가 갖지 못했던 시민 의식과 사회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26)

## (2) 주링허우

다같이 개혁개방 이후 출생했지만 바링허우와 주링허우는 엄연히 다르다. 개혁·개방 초기에 성장한 바링허우의 유년기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단계로 갓 들어선 때였고, 중산층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 반면, 주링허우는 발전 속도와 생활 변화가 가장 빠른 시대에 성장했고 부모들이 이룬 부의 혜택을 어릴 때부터 누렸다. 바링허우는 TV 세대고 주링허우는 진정한 인터넷 세대다. 주링허우는 바링허우를 딸기족(草莓族)이라고 부른다. 겉보기엔 탐스럽지만 금방 물러터지는 딸기처럼 신세대의 신선함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주링허우에겐 젤리족(果冻族)이란 별칭이 있다. 젤리처럼 뚜렷한 형체도 없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직장 생활을 보면 치링허우(70后)는 야근이 일상화 된 반면, 바링허우는 칼퇴근에 목숨을 걸고, 주링허우는 아예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식이다. 치링허우는 상명하복에 순응하지만, 바링허우는 선배들에게 평등을 주장하고, 주링허우는 아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27)

25) 쓰촨대지진 또는 원촨(汶川)대지진은 2008년 5월 12일 쓰촨성 원촨현에서 발생(리히터 규모 8.0)했다. 1949년 중국성립 이래 가장 큰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는데 사망 69,227명, 부상 374,643명, 실종자 17,923명이었다. 집이 유실된 인구는 1993만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4625.6만명으로 당시 중국인구(13.28억명)의 3.5%에 달했다.

26) 吕华毅, 「青年自愿者参与公益事业可促进和谐社会的发展」, 北京论坛, 文明的和谐与共同繁荣—为了我们共同的家园: 责任与行动, 2010.11.05.

베이징대 마케팅매체연구센터(2015)에 따르면, 주링허우는 독립, 집념, 자유로움, 합리성을 세대의 특징으로 선택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해외 여행, 해외 유학 경험 이 많아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다. 정보화시대에 성장해서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보편화되어 있다.

<표2> 중국의 가족계획(계획생육) 정책 변화

정 책	시기	관련 법률, 조치	비고
가족계획 정책 입안	1971.07	국무원 '계획생육 업무보고' 승인 (1971.07)	국민경제발전계획에 인구성장 지표 최초 포함
1가구 1자녀	1979	제5차 전인대 2차 회의 결의 (1979.06.18.~07.01)	《혼인법(1980.9)》 제정후 계획생육 의무조항 신설
농촌 1.5자녀 정책 (一胎半)	1982	행정조치. 농촌에서 첫째 딸이면 둘째 출산 가능	6개 성은 농촌 지역에서 2자녀 허용
부모 모두 외동만 2자녀 (双独二孩)	2011.11	《인구계획생육법(2002.9)》에 근거한 행정조치	특수한 상황에서 2자녀 허용
부모 한명이 외동이면 2자녀 (单独二孩)	2013.12	공산당 결정, 행정조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2013.3) 설치
1가구 2자녀 (全面二孩)	2015.10	《인구계획생육법》 2015.12 수정	2016년부터 법에 근거하여 2자녀 허용
1가구 3자녀	2021.05	《인구계획생육법》 2021.08.20 수정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

자료: 김동하 외(2019), 『차이나 키워드』, 시사중국어사, pp.298-301.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홈페이지 공개 자료 종합. (www.nhc.gov.cn)

정보 이용에 익숙하고 소득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이성적 소비경향이 강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가격비교, 제품 사용후기 등을 종합한 합리적 소비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기소득이 높지 않지 않음에도 부모 의존적으로 소비자금을 충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내에 신용카드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부족한 소득 아래에서도 소비를 쉽게 실행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기분 내키면 그냥 산다(喜欢就买)’라는 소비성향 때문에 중국 내 사회문제로도 대두됐다.<sup>28)</sup>

### (3) 링링허우

링링허우는 2000년대 출생한 중국인들이다. <표2>에서 보이는 것처럼, 1979년부터 30년간을 지속해 온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이 2011년이 되자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 즉 부모 모두 외동 자녀이면 2자녀를 허용한 것이다. 2013년에는 부모 중 1인만

27) 임상범, 「중국의 미래 주역 지우링허우(90后)」, 성균차이나브리프, 5권1호, 2017, p.151.

28) 장정재, 「중국 20·30세대 新소비 트렌드와 부산의 대응」, BDI정책포커스, 339호, 부산발전연구원, 2018.06.11.



외동이어도 2자녀를 허락했다. 2015년 10월이 되자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 중국에서 독생자녀 정책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링링허우는 중국에서 마지막 독생자녀 세대가 되었다.

링링허우 세대는 인터넷 원주민이다.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1994년에 중국에 도입된 인터넷은 1995년 주요 도시에서 상업서비스를 시작했다. 2009년 상반기가 되자 인터넷이 가능한 3G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4년에 4G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스마트 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 링링허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며 유년기를 보냈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주링허우의 8배에 이른다. 링링허우가 성장하는 동안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개최했고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준으로 국력이 급성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을 부각해 가르쳤다. 그래서 애국주의가 링링허우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다. ‘불굴의 정신은 중화 혈통의 특징’ 같은 랩 가사를 따라부른다. 이 때문에 귀차오(國潮·국산품 소비) 마케팅은 링링허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sup>29)</sup>

중국산 스포츠웨어 리닝은 2019년 한자와 홍색을 활용해 매출이 30% 늘었다. 링링허우는 더 이상 해외 브랜드에 열광하지 않는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산품을 찾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화시즈 같은 국산 브랜드 화장품을 쓴다. 완메이르지는 왕홍(網紅, 인플루언서)과 SNS를 마케팅에 활용해 성장한 화장품이다. 가장 젊은 링링허우는 현실적이기도 하다. 링링허우 저축률은 70%로 10년 전보다 47% 높아졌다. 워라밸(work-life balance)도 놓치지 않는다.

## 2) 인구 구조의 변화

2022년 중국인구는 14억 1175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비 85만명이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약진운동(1958~1960)으로 약 3천만명이 굶어죽은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7차 인구센서스 결과(2020) 역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연령인구인 16~59세는 2021년말 총인구의 62.5%인 8억 8,222만명으로 전년(62.3%)에 비해 247만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생산연령인구에서 제외된 1961년 출생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출생인구가 감소한 것은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 결혼관 변화, 양육비용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3.6억명 이상을 유지하던 가임기 여성수(15~49세)가 2019년말 3.4억명대로 줄었고, 2021년에도 전년비 500만명이 감

29) 이충형, “링링허우(00後) ‘90년대생과도 달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애국 청년들”, 『중앙일보』, 2022.06.24.

소했다. 가임기 여성의 평균 자녀출산 의향도 2017년 1.76명, 2019년 1.73명이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1.64명으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92년 1.98로 인구규모의 유지에 필요한 2.1을 하회하였으며, 2020년 1.3, 2021년에는 1.15로 하락했다. COVID-19로 인한 의료시설 회피, 소득감소 등으로 출산계획을 취소·연기하는 사례도 2020~2021년중 출생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조출생률은 10.41명에서 2020년 8.52명, 2021년 7.52명으로 감소했다.<sup>30)</sup>

또한 2022년부터 출생률이 가장 높던 시기였던 1962~1964년(조출생률 37명 이상)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도래로 은퇴 규모가 신규 취업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함에 따라 노동력 수급 불균형 및 연금수급인원 급증 등 사회문제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남성기준 법정정년인 60세 은퇴와 취업연령 22세를 기준으로 대략 산정해 볼 경우 2022년 중 은퇴인구는 신규취업인구보다 약 720만명 많은 상황이다.

<표3> 중국 인구 센서스 회차별 인구 비교

회차	실시연도	총인구(만명)	증가율(%)	비 중(%)	
				15~64세	65세이상
1	1953	59,435	-	59.31	4.43
2	1964	69,458	16.86	55.75	3.57
3	1982	100,818	45.15	61.50	4.91
4	1990	113,368	12.45	66.74	5.57
5	2000	126,583	11.66	70.15	6.96
6	2010	133,972	5.84	74.53 (70.14)*	8.87
7	2020	141,178	5.38	68.55 (63.35)*	13.50

주: 증가율은 전회차 센서스 대비 증가율임. \*표기 비중은 15~59세 기준.

자료: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최근 인구성장세 둔화에 따른 중국정부의 대응」, 현지정보, 2022.02.15.

「7차 인구센서스」(2021년 5월) 직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적극적인 출산·보육 장려정책을 담은 ‘출산정책 개선을 통한 인구의 장기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수준 유지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해 오던 2자녀 정책을 3자녀 정책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인구계획생육법’을 수정하여 3자녀 출산정책 등을 정식 입법화(2021년 8월)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초과출산벌금인 사회유지비 부과 및 처벌규정의 폐지, 후커우·취학·취업 등을 개인의 출생 상태와 연계하던 각종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방안을 발표(2021년 7월)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산아제한을 3자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역별 인구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자원, 식량 등 자원 부

30)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粗出生率): 1년간 발생한 총 출생건수를 당해연도 연앙기준(한 해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즉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한다.

족 하에서 여전히 계획출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4> 중국의 연도별 출생자 현황 (1949~2021년)

(단위: 만명)

연도	출생자	비고	연도	출생자	비고	연도	출생자	비고
1949	1,275	중국 성립	1974	2,226		1999	1,827	
1950	1,419		1975	2,102		2000	1,771	
1951	1,349		1976	1,849		2001	1,702	WTO가입
1952	1,622		1977	1,783		2002	1,647	인구계획생육 법 제정
1953	1,637		1978	1,733		2003	1,599	
1954	2,232		1979	1,715	1가구 1자녀 정책	2004	1,593	
1955	1,965	2차 세계 대전 종식후, 1차 베이비붐	1980	1,776		2005	1,617	
1956	1,961		1981	2,064		2006	1,585	
1957	2,138		1982	2,230	1가구1.5자녀 정책	2007	1,595	
1958	1,889		1983	2,052		2008	1,608	미국발 금융 위기
1959	1,635	대약진운동 실패 후 기근 도래	1984	2,050		2009	1,581	
1960	1,402		1985	2,196		2010	1,592	
1961	949		1986	2,374	3차 베이비붐, 앞선 두차례 베이비붐 세대 결혼적령기 도래	2011	1,604	외동부모 2자녀 허용
1962	2,451		1987	2,508		2012	1,635	시진핑 집정
1963	2,934		1988	2,445		2013	1,640	부모1인 외동 2자녀
1964	2,721	2차 베이비붐.	1989	2,396		2014	1,687	
1965	2,679	문화대혁명 시 기에 출산 장려	1990	2,374		2015	1,655	1가구 2자녀 정책
1966	2,554		1991	2,250		2016	1,786	
1967	2,543		1992	2,113		2017	1,723	
1968	2,731		1993	2,120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작	2018	1,523	
1969	2,690		1994	2,098		2019	1,465	
1970	2,710		1995	2,052		2020	1,200	
1971	2,551	가족계획 정책 입안	1996	2,057		2021	1,062	1가구 3자녀 정책
1972	2,550		1997	2,028				
1973	2,447		1998	1,934				

자료: 국가통계국 및 중국통계출판사에서 발행된 『中国人口统计年鉴』 1998년부터 2006년호, 『中国人口和就业统计年鉴』 2007년부터 2020년호 참고하여 필자 구성.

### 3. 중국의 고령화와 양로 체계

#### 1) 고령화와 정부 대책

중국의 고령화율은 14.2%(65세 이상, 2021년)이며 생산연령인구는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세계평균 고령화율은 9.3%(2020년, UN), OECD는 17.5%(2020년)이다. 중국은 고령화사회(2000년)를 넘어 고령사회(2021년)로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14% 미만), 고령사회(14~20% 미만),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한다. 중국의 고령화는 미국·영국 등 서구사회에 비해 빠르게 진행중이며,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노동력의 이점이 하락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3년 10.1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비중도 2010년 74.5% 이후 하락(2021년 9.7억명, 68.3%)했다. GDP 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 역시 1990~1999년 간 2.1%포인트에서, 0.9%포인트(2000~'09년), 0.8%포인트(2010~'19년)로 하락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1년말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명으로 총인구 중 18.9%임을 밝히고, 2025년에 3억명 돌파하고 한 후 총인구 중 비중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를 '중도 고령화 단계'로 분류한다.

인구 고령화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다. 10년간 중국인 기대수명은 74.8세에서 78.2세로 3.4년 늘어났다. 반면 2021년 신생아 수는 1062만명으로 5년 전보다 821만명 줄어 1961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고령화 문제는 농촌에서 먼저 가시화되고 있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60세 이상 인구는 2021년말 기준 411만6000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섰고, 상하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23.4%에 달했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정부도 1999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시작했다. 국무원은 전국노인업무위원회(全国老龄工作委员会)를 설립하고, 고령화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1996년 8월에 중국노인권익보장법(老年人权益保障法, 이후 4차례 수정)을 제정하고, 중국노인사업발전 11·5규획(2006~2010)을 2006년 8월에 제정하여 노인 사업을 국가 발전전략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1991년부터는 국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기업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는 기본양로보험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노인들의 최저생계방안을 마련하였다. 노인들이 거주하고 다니기 편하도록 '노인건축설계규범', '도시도로와 건축물 장애설계 규

범’ 등 법규도 제정하였다. 2020년 10월에서는 ‘14·5규획과 2035년 원경목표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가 통과되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표5> 중국 2012-2021년간 65세 이상 노령인구 변화 및 비중

(단위: 만명, %)



자료: 中国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2022』, 2022.10. 및 국가통계국 D/B 참조하여 필자구성.  
<http://www.stats.gov.cn/tjsj/ndsj/2021/indexch.htm> [2022.12.09.]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은퇴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국의 퇴직연령은 국유기업일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이다. 그 밖의 기업은 각각 55세와 45세이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 보고<sup>31)</sup>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다. 한국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이지만, 중국의 경우 53세 이후 줄곧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표6>은 노동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인구 비율이다. 2014년에는 14.3에 머물렀으나 2021년에는 21.1로 올라섰다.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비용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6> 중국 노인 부양비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4.3	15.0	15.9	16.8	17.8	19.7	20.8	21.1

\*주: 노동가능인구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 비율.

\*\*자료: 中国统计出版社, 『中国统计年鉴-2022』, 2022.10. 및 국가통계국 D/B 참조하여 필자구성. <http://www.stats.gov.cn/tjsj/ndsj/2021/indexch.htm> [2022.12.09.]

31) “中国人的平均退休年龄是多少岁?”, 「华律网」, 2023.01.02, <https://www.66law.cn/laws/872792.aspx> [2023.01.12.]

## 2) 양로 체계와 현황

중국 양로는 주체를 기준으로 사회양로, 사구양로, 가정양로 3개로 나뉜다. 중국 내에서도 양로 체계를 잘 구비한 베이징 모델은 ‘9064’로 불리는데 이는 90%의 노인을 가정양로로 돌보고, 6%는 사구양로로, 4%는 기관(양로원) 양로로 부양하겠다는 의미이다. 상하이 모델은 ‘9073’인데 이 비중을 90%, 7%, 3%로 잡고 있다.

사회양로는 기구(기관)양로와 같은 개념이며, 경로원, 양로원, 호로원, 호양원, 호리원 등 기관에 입주하여 본인의 상태에 따라 케어를 받는다. 이들 기구(기관)은 자비 부담으로 운영되는 민영과 정부 보조금을 위주로 운영하는 관영으로 나뉜다. 가정양로는 자녀들이 부모 혹은 본인들 자택에서 양로를 하는 경우이다.

사구양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로인데 사구(社区) 즉 지역커뮤니티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양로서비스센터(社区养老服务中心), 양로스테이션(社区养老服务站)을 설치하고 업무시간에만 노인을 위한 문화, 오락, 의료 서비스를 한다. 업무가 끝나면 노인들은 본인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 또한 사구는 별도로 집체경로원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무상과 유상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다. 즉 공공부조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나, 기타 노인들은 자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sup>32)</sup> 사구는 중국의 행정말단 조직인 가도판사처(우리의 읍·면동사무소에 해당)의 하부조직으로 볼수 있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중국에는 도시 및 농촌 말단행정조직인 8925개의 가도판사처, 1301개 현, 21.3만개의 진이 있다. 또한 같은 해 중국에 사구양로기구와 시설(양로서비스센터, 양로스테이션)은 모두 31.8만개가 있는데, 이중 도시에 9.9만개 농촌에 2.19만개가 위치하고 있다.<sup>33)</sup>

<표7> 2013-2021년간 중국 양로 기관(양로원)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관수(개)	34,141	27,935	28080	28710	29332	34065	38069	39817
증감율(%)	-17.98	-18.18	0.52	2.24	2.17	16.14	11.75	4.59

자료: 연도별 민정부 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참고하여 필자 정리. <https://www.mca.gov.cn/article/sj/tjgb/> [2022.12.09.]

32) 선우덕,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협동연구총서 11-03-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pp.79-87.

33)民政部, 「2021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2022.08.26.

2021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3994.7만명 노인이 각종 지원금, 연금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중 고령연금(지원금) 수혜자는 3246.6만명, 노인케어 보조금(护理补贴) 수혜자는 90.3만명, 양로서비스 보조금 수혜자는 573.6만명, 종합 보조금 수혜자는 84.2만명 수준이었다. ‘2021 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사구 양로기구와 시설은 모두 31.8만개로 모두 312.3만개 침상을 보유했다. 사구 양로기구 내 최대 설치가능 침상 규모는 530.5만개이며, 연말기준 양로 인원은 238.1만명이었다. 사구 양로기구 침상의 55.1%가 빈 상태인데 이는 노인들의 소득이 너무 낮아 양로기관(양로원)보다 저렴한 사구 양로기구에도 입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未富先老)’라고 표현한다.

부족한 양로시설, 높아지는 비용을 해결할 방안으로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재가양로(居家养老)이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돌봄·목욕·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의 방문 홈케어에 해당한다. 2001년 6월에 국무원이 ‘사구 노인복지서비스 별빛계획(全国社区老年福利服务星光计划)’을 공포하여 시작했다.<sup>34)</sup> 베이징시도 같은 해 사구에서 노인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중국 내 처음으로 2015년 5월에 ‘베이징재가양로복무조례’를 공포하여, 재가양로를 국가양로체계에 편입시켰다. 동 조례에 따라 베이징시는 재가양로 기준을 정하고 양로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구양로 시설과 인원을 재가양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8> 중국 양로기구(기관)의 구분 및 특성

구분		공익 기능	거주 여부	주요 기능
기구(기관) 양로	경로원 (敬老院)	△	○	문화, 오락, 보건, 회복. (사구 내 경로원은 비거주도 있음)
	양로원 (养老院)	X	○	노인을 위한 생활, 의료 종합서비스 설비
	호로원 (护老院)	△	○	장애노인 보호시설
	호양원 (护养院)	△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케어
	호리원 (护理院)	△	○	의료진이 집중케어하는 양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대상
사구양로 (社区养老)	사구양로서비스센터(社区养老服务中心)	○	X	업무시간에 생활, 의료 서비스 향유, 저녁에는 본인 집으로 귀가함. 센터가 상급기구임.
	사구양로서비스스테이션(社区养老服务站)	○	X	

34) 선우덕,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 방안」, 협동연구총서 12-33-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pp.102-105.

재가양로 (居家养老)	노년 아파트 (老年公寓)	X	O	고령자 집단거주, 식사, 의료 서비스 제공
	본인 주택	△	O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가정 양로	본인 주택	X	O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에서 양로

주: 공익기능 중 △표기는 공익형, 수익형(기업형)이 혼재함을 의미.

자료: 沈潔, 『中華圈の高齡者福祉と介護—中国・香港・台湾』, ミネルヴァ書房, 2007. 김복희 외, 「중국 양로서비스 시장과 수요공급적 특징분석」, 『중국지역연구』, 19호, 2021.05, p.171. 참고하여 재구성.

### 3) 양로보험과 연금

민정부에 따르면 2021년말, 중국에는 각종 유형(도시·농촌·직장)의 기본양로보험 가입자가 10.3억명에 달한다. 중국의 국민연금격인 기본양로보험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근로자기본양로보험과 비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민 기본양로보험이 있다. 2020년 기금 규모는 8.3조 위안이다.

중국의 퇴직연금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기업연금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직업연금으로 구성되며 2020년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가입자수는 7천만명이다. 반면,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은 2020년 기준으로 4억 8800억 위안에 불과했다.

기본양로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직장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2000년 70%대에서 2019년 40%대까지 하락하였으며, 거주민 기본양로보험 수준은 더 낮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물가 및 임금 상승에 기인한다. 기업연금은 강제 규정도 아니어서 2020년 가입 근로자가 2,718만명으로, 같은 해 중국 직장 근로자의 5.9%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가입하는 직업연금은 2014년부터 의무화 되어 구성원 전체(4,235만명)가 가입되어 있다.

기본양로보험의 납부 및 지급 기준은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도시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 내 31개 지역(성, 직할시, 자치구)의 최저임금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베이징 시는 최저임금(2320위안, 2021년 8월)이 직종별로 동일하나, 허베이성(2019년 11월)은 직종을 4개로 나누어 최고 1900위안에서 최저 1580위안으로 20.3% 차이가 난다. 또한 중국 내 최고 수준인 상하이 2590위안(2021년 7월)과 최저 수준인 안후이성 1340위안(2021년 12월, 4급직종)간에는 93%의 격차가 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양로보험의 수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힘들다.



&lt;표9&gt; 중국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양로보험(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양로금)	
	직장근로자기 본양로보험	거주민 기본 양로보험	기업연금	직업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가입방식	의무	의무	임의	의무	임의	임의
재원	개인, 기업	개인, 소속단 체, 정부	개인, 기업	개인, 정부, 공공기관	개인	개인
가입자수(만 명)	45600	54200	2718	4235	49000	미공개
기금규모(억 위안)	48300	97590	22497	12900	43000	5800

자료: 이소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의 연금제도 개혁방향, CSF전문가포럼, 2022.10.27.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기본양로보험은 회사가 임금의 20%, 근로자가 8%를 납부한다. 월급 4000위안인 근로자는 매월 320위안을 양로보험비로 공제하고, 기업은 800위안을 납부한다. 15년 이상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말 기준으로 현재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금 가입자들은 퇴직후 양로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베이징시를 보면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 최저지급기준을 연간 1,000위안, 최대는 7,420위안으로 책정해 놓았다. 이를 월간으로 계산해 보면 매월 83.3위안~618.3위안 수준이다.

상하이시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별 납부기준은 500~3300위안 등 12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상하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각각 200~575위안(12개 구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국기업도 많이 진출한 산둥성 웨이하이시 기준을 보면, 2022년 7월부터 기본양로보험금 지급 최저액을 전년도 162위안에서 6.2% 인상된 172위안으로 책정했다. 앞선 베이징보다는 높고 상하이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sup>35)</sup>

#### 4) 중국 양로 체계의 문제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21년 베이징, 상하이 같은 1선도시 사영기업과 비사영기업 평균연봉은 각각 13.4만 위안, 12.6만 위안인데, 같은 해 중국 평균연봉은 7.8만 위안이다. 도시와 농촌간 노인 노후보장 체계 간극이 너무 큰 것이다. 또한 2021년도 중국의 기업 퇴직자가 매월 받는 양로연금(기본양로연금+기업·직장연금) 평

35)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大数据中心 (<http://rsj.beijing.gov.cn>) 基本养老保险 규정 참조.

균 액수는 2987 위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렴한 양로원도 월 8천 위안 이상이 필요하며, 고급형은 수만 위안 수준이다. 실비형 양로원과 사구 내 경로원(敬老院)의 경우, 월 5천 위안 이하를 내면 되지만 입주 수요가 많아 항상 부족하다.

민정부에 따르면 양로기구(양로원) 90% 이상은 공익성 법인이며, 이들 중 40% 이상은 공공서비스기관에 속했다. 지방정부 재원으로 건물을 세우고, 민영기업에게 운영을 맡기는 양로원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다소 비용이 저렴하다. 베이징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간 시내 양로기구(양로원) 중 운영·건설·인원·임대비에 정부 보조를 받은 비율은 82.7%에 달한다. 이중 사업단위 양로기구 1곳 당 평균 보조금은 189만 위안이고, 민간운영 공익법인에는 177만 위안, 민영 양로원 68만 위안이었다. 베이징 사업단위<sup>36)</sup> 양로기구의 78%, 민간운영 공익법인과 민영 양로원 53%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조금이 투입된 것은 민간 양로원은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2015년 베이징 통계에 따르면 50% 이상 양로기구가 수지균형, 40%는 장기간 적자였고, 흑자를 거두고 있는 양로기구는 9% 뿐이었다. 이는 2014년(전년비 -18%)과 2015년(-18.2%)에 중국 양로기구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는 원인이다.

재정부 정부사회자본합작센터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양로기구 영업이익률은 5-10% 수준이었다. <sup>37)</sup> 2020년 베이징의 양로원 소비(지출) 수준을 보면, 월 4천 위안 이하 65%, 4-6천 위안 17.2%, 6-8천위안 8.5%, 8천위안-1만위안 4.5%, 1만위안 이상 4.8% 수준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수준의 4천 위안 이하 구간도 2021년 직장퇴직자 평균 양로금(국가 및 기업연금) 2987위안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sup>38)</sup>

<표10> 2016-2021년간 중국 양로 기관(양로원) 및 사구양로기구 현황

(단위: 만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양로기구(양로원)	11.1	12.6	13.9	17	29.1	31.8
사구양로기구 및 시설	2.9	2.9	2.9	3.4	3.8	4.25

자료: 연도별 민정부 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참고하여 필자 정리. <https://www.mca.gov.cn/article/sj/tjgb/>

36) 사업단위(事业单位·Public Institution)는 국가기관은 아닌데 사용경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지원을 받으며, 기업이 아닌데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공익 서비스를 주로 하는 ‘반민반관(半民半官)’ 형태의 조직이다. 주로 병원, 출판사, 각종 연구소 등이 이에 속한다.

37) 刘卓也, “未来十年中国年均2000余万人退休! 8万亿养老产业, 大厂纷纷入局”, <https://baijiahao.baidu.com/s?id=1751381942258641750&wfr=spider&for=pc> [2022.12.05.]

38) 华经产业研究院, 「2022-2027年中国养老机构行业市场深度分析及投资战略规划报告」, <https://m.huajing.com/detail/835146.html> [2022.09.10.]

#### 4.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 1) 노인 부양에 대한 부모의 인식

石浩廷(2018)<sup>39)</sup>은 독생자녀와 비독생자녀를 둔 부모 대상 설문조사<sup>40)</sup>를 통해 노인의 부양 인식을 분석했다. 부모 케어에 대한 걱정 여부 질문에 다자녀 가정은 27%가 근심하고 있고, 독생자녀 가정은 80.4%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즉, 중국 독생자녀 가정의 미래 가장 큰 근심거리는 부모 케어인 것이다. 부모들에게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독생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78.4%나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으며, 다자녀 가정은 17%에 불과했다.

부모 주요 수입원 중 퇴직금에 의존한다는 답변은 독생자녀 가정 63%, 다자녀 가정 59.1%로 전자가 높았다. 이는 설문대상 독생자녀 가정 부모 연령대가 다자녀 가정보다 현저하게 젊어서 사회보장 시스템 혜택을 독생자녀 가정 부모가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부모 본인들의 근로수입에 의존한다는 답변이 21.6%(다자녀 가정), 15%(독생자녀 가정)였다. 국가 지급 노령연금에 만족하는 비율은 20.4%에 불과했고, 60%가 불만을 표시했다.

부모들 건강 상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주 좋거나 비교적 좋음이 28%였고, 독생자녀 가정은 25.8%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부양의 형태나 구성에 따라 건강에까지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18%가 자녀 1명 이상과 부모가 같이 살고 있었으며, 독생자녀 가정은 9.3%에 그쳤다. 향후 어떻게 부모를 케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다자녀 가정 70%는 가정에서 케어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독생자녀 가정은 6.3%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독생자녀 가정은 27.6%가 자비부담이 포함된 양로원(기구양로)을 선택했으며, 66.1%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재택 양로(사구양로·社区养老)를 선택했다. 독생자녀 가정에만 부모 발병시 누가 간호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자녀 30% 부모님 본인(배우자 포함)은 67.3% 순이었다.

39) 石浩廷, 「独生子女家庭养老问题的对策研究—基于政府责任视角」,学位论文, 东北财经大学, 2018.

40) 黑龙江省 동남부에 위치한 쑤이퉁허시(인구 21만명)는 2만 3042가구(상주후커우), 1가정 당 2.93명이 살고 있었다. 2018년 도시화율(인구 도시거주비)은 84.8%였다. 독생자녀 및 비독생자 가구 각각 100호에 설문이 진행(197건 유효)되었다. 부모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다자녀 가정이 6%, 독생자녀 가정은 36%였다.

&lt;표11&gt; 흑룡강성 수이펀허시 독생자녀 및 비독생자녀 가정의 부모 부양 현황

(단위: %)

	부모 연령 구조				
	55~60세	61~65세	65세 이상		
다자녀 가정	16	18	66		
독생자녀 가정	56.8	7.2	36		
	부모의 주요 수입원				
	부모의 근로	퇴직금	자녀들 효도금	배우자 제공	
다자녀 가정	21.6	59.1	12.1	7.2	
독생자녀 가정	15	63	19	3	
	부모는 국가가 주는 노령연금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	비교적 만족	중립	비교적 불만	불만
독생자녀 가정	10.05	10.32	20.67	26.44	33.52
	부모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음	비교적 좋음	일반	비교적 나쁨	나쁨
다자녀 가정	6	22	36	26	10
독생자녀 가정	7.2	18.6	34	36.1	4.1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가?				
	예	아니오			
다자녀 가정	18*	82	*자녀들 중 1인 이상과 같이 거주할 경우.		
독생자녀 가정	9.3	90.7			
	향후 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케어할 것인가?				
	양로원 (기관)	재택 양로(지역커뮤니티)	가정에서 양로		
다자녀 가정	7	23	70		
독생자녀 가정	27.6	66.1	6.3		
	부모가 병이 나면 누가 간호할 것인가?				
	부모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친척	이웃	
독생자녀 가정	67.3	29.28	2.39	0.96	

자료: 石浩廷, 「独生子女家庭养老问题的对策研究」, 学位论文, 东北财经大学, 2018, pp.13-23.

刘静(2022)<sup>41)</sup>은 2017년에 이루어진 독생자녀 부모 2,947명과 비독생자녀 부모 2,451명 설문조사<sup>42)</sup>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해 양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두 계층(독생자녀 vs 비독생자녀) 인식차이를 조사했다. 연령대를 보면 독생자녀 부모의 경우 40~59세 66.61%, 60~69세 25.89%, 70세 이상 7.5%였고, 비독생자녀 부모는 4

41) 刘静, 「独生子女父母的养老责任观念及影响因素研究」, 山东财经大学 学位论文, 2022.

42)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중국사회현황종합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동 조사는 중국 내 30개 성·직할시·자치구의 576개 사구(社区)에서 10,091호 가정을 방문해서 진행되었다. 刘静(2022)은 데이터 중 자녀를 둔 40세 이상 부모 가정 5,398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0~59세 49.36%, 60~69세 32.47%, 70세 이상 18.17%였다.

독생자녀들 부모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8.5%가 주로 자녀들 책임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를 앞선 石浩廷(2018)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보면, 독생자녀 자녀들은 부모를 모실 생각이 없는데, 정작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케어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비독생자녀들의 부모 역시 46.4%가 자녀에 케어 책임이 있다고 답을 했으며, 이는 독생자녀 부모보다 7.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부모 부양이 정부 책임이라는 답변은 독생자녀 부모가 높았으며(2.44%포인트), 노인 본인 책임이라는 답변은 비독생자녀 부모들이 다소(1.78%포인트) 높았다.

독생자녀 부모들의 답변만을 대상으로 노인부양 책임소재에 대해 분류를 해보면 농촌 후커우 소지 부모들이 도시 후커우 소지자들보다 자녀 책임이라는 답변 빈도가 높았다. 남자 아이를 둔 부모가 여자 아이를 둔 부모보다 자녀 책임이라는 답변 빈도가 높았다. 잘사는 가정일수록 자녀에게 케어를 책임지려하는 경향이 낮았다. 기본양로보험 가입 여부도 부양 책임 소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험 가입자의 자녀 의존도는 35.8%였으나, 미가입 부모는 50.7%가 자녀에게 케어를 의존하려 했다.

<표12> 부모 부양(케어) 책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로 정부 책임	주로 자녀 책임	주로 노인 본인 책임	정부·자녀·노 인 균등책임	합계
독생자녀의 부모		17.58	38.45	8.01	35.97	100%
비독생자녀의 부모		15.14	46.35	9.79	28.72	100%
독생자녀 부모들의 인식 구분						
		주로 정부 책임	주로 자녀 책임	주로 노인 본인 책임	정부·자녀·노인 균등책임	합계
후커우	농촌	11.99	52.34	4.29	31.37	100%
	비농촌	21.74	28.08	10.78	39.4	100%
자녀 성별	여	20.47	34.97	9.15	36.01	100%
	남	15.71	41.08	7.27	35.94	100%
가정 경제 수준	평균 이하	19.7	39.24	6.75	34.31	100%
	평균	15.97	38.54	8.54	36.94	100%
	평균 이상	16.13	33.87	11.29	38.71	100%
기본양로보 험	미가입	15.87	50.67	4.4	29.03	100%
	가입	17.95	35.81	8.79	37.46	100%

자료: 刘静, 「独生子女父母的养老责任观念及影响因素研究」, 山东财经大学 学位论文, 2022, pp.24-35.

## 2)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인식

노인 부양에 대한 바링허우, 주링허우, 링링허우의 인식을 알기 위해 필자는 원취 안싱(问卷星) 설문 사이트를 활용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334건의 유효한 답변이 확보 되었으며, 계층별 분포를 보면 바링허우 12.28%, 주링허우 47.6%, 링링허우 40.12% 수준이었다. 성별은 남자 17.6%, 여자 82.34%였고, 기혼자는 24.25%, 미혼 75.15%, 이혼자 0.6% 수준이었다. 이들 중 독생자녀는 29.94%였고, 형제자매 2명은 57.78%, 3명 10.48%, 4명 1.5%, 5명 이상 0.3% 수준이었다. 설문기간에 주링허우는 24~33세, 링링허우는 14~23세에 해당되어 이들 부모의 연령은 54세 이하가 4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5~60세가 37.13%를 나타냈다. 중국 평균퇴직 연령 53세를 고려하면, 본 응답자 부모의 49.1%는 여전히 재직 중이며, 나머지 50.9%는 퇴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부터 시작된 1가정 1자녀 정책은 부모 모두가 외동일 경우 둘째를 허용한 정책이 2011년 11월에 도입되면서 종료되었다. 그후 부모 중 1인 외동 2자녀 정책(2013), 1가구 2자녀 정책(2015)에 이어 2021년 5월에는 1가구 3자녀 정책으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본 설문조사 응답자 중 독생자녀 비중이 29.94%까지 낮아진 배경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를 했다.

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sup>43)</sup>에서 나타난 2009년 11월~2010년 10월간 출생자 119만명 중 외동 비중은 62.2%였고, 제7차 인구센서스(2020)<sup>44)</sup>에서 나타난 2019년 11월~2020년 10월간 중국의 출생자 121.2만명 중 외동 비중은 45.8%로 -16.4%포인트 낮아졌다. 인민대 인구발전연구센터에서 2021년에 진행한 ‘대학생 혼인과 생육관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학생 9775명 중 독생자녀 비중은 35.71%였다. <sup>45)</sup> 따라서 본고 설문조사 기간(2023년 1월)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비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 고령화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88.93%가 이해하거나 약간 이해하고 있다고 답을 해, 응답 당시 다소 어린 연령대인 링링허우(14~23세)도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가 중국의 경제·사회에

43) 国家统计局, 「2010年第六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公报」(2011.4.28.) (2010.11.01. 조사 기준), [www.stats.gov.cn/tjsj/tjgb/rkpcgb](http://www.stats.gov.cn/tjsj/tjgb/rkpcgb) [2022.12.16.]

44) 中国统计出版社(2022), 『中国人口普查年鉴-2020』, 国务院第七次全国人口普查(2020.11.01. 조사 기준), [www.stats.gov.cn/tjsj/pcsj/rkpc/7rp/zk/indexch.htm](http://www.stats.gov.cn/tjsj/pcsj/rkpc/7rp/zk/indexch.htm) [2022.12.16.]

45) 中国人民大学人口与发展研究中心 ‘中国大学生婚育研讨会’ 2022.04.21. <http://pdsc.ruc.edu.cn/xsd/t/62f8669293734fbeb0868663382bd94.htm> [2023.01.12.]. 22개 省, 26개 도시의 30개 대학에서 진행되었고, 피설문자 평균 연령은 20.29세였음.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8.15%가 부정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을 했다. 부모의 주요 수입원에 대해서는 부모 근로가 83.53%에 달해 응답자 10명 중 8명의 부모는 여전히 근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노령 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과 비교적 만족이 30.24%였으며, 비교적 불만과 불만이 14.67%로 만족하는 쪽이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들 주링허우, 링링허우들에게 지금 혹은 향후에 부모와 같이 살 계획인가를 물었는데 그렇다고 한 응답이 22.46% 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62%였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부모를 부양할 계획인지를 물었는데 자녀가 가정에서 부양을 한다는 비중이 76.6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택양로 형태를 포함한 사구양로가 20.96%를 점유했고, 양로원 같은 기구양로는 2.4%에 불과했다. 부모가 병이 나면 누가 간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녀가 79.64%로 최대를 점유했는데 이는 앞선 부양 계획 결과와 유사한 비중을 보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부모 본인 및 배우자가 14.07%를, 간병인은 6.29%에 머물렀다.

<표13> 고령화 및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세대 인식 현황

(단위: %, 건)

중국 고령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함	약간 이해함	모름	전혀 모름		
27.25	61.68	8.98	2.1		
고령화가 중국의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주 좋은	좋은	영향없음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3.29	8.38	10.18	72.16	5.99	
부모 연령 구조					
54세 이하	55~60세	61~65세	66세 이상		
49.1	37.13	8.68	5.09		
부모의 주요 수입원 (가장 비중이 큰 항목 2개 선택)					
부모의 근로	퇴직금	자녀들 용돈	배우자 제공	국가양로보험	본인 저축
83.53	20.96	5.39	1.5	5.69	24.55
부모는 국가가 주는 노령연금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	비교적 만족	중립	비교적 불만	불만	
6.59	23.65	55.09	11.68	2.99	
부모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음	비교적 좋음	일반	비교적 나쁨	나쁨	
23.65	39.52	27.25	7.49	2.1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가? (살 계획인가?) *					

	전체(%)	80后 (건)	90后 (건)	00后 (건)
예	22.46	10	30	35
아니오	41.62	25	87	27
아직 모름	35.93	6	42	72
향후 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케어(부양)할 것인가? *				
	전체(%)	80后 (건)	90后 (건)	00后 (건)
기구 양로(양로원)	2.4	4	2	2
자녀가 가정에서 양로	76.65	11	43	16
사구 양로 (지역커뮤니티 중심 재택양로)	20.96	26	114	116
부모가 병이 나면 누가 간호할 것인가? **				
	전체(%)	80后 (건)	90后 (건)	00后 (건)
부모 본인 혹은 배우자	14.07	4	30	13
자녀	79.64	31	118	117
간병인	6.29	6	11	4
친척 혹은 이웃	0	0	0	0

주: 교차분석을 통해 X2 검증을 실시한 결과, \* $p < 0.05$ , \*\* $p < 0.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  
 자료: 필자 설문조사 결과 정리(2023.01.31.). n=334.

## 5. 결론

본고에서 살펴본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와 자식 세대간의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 부양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부모들은 자녀 책임이라고 답한 비중이 38.45%(독생자녀 부모), 46.35%(비독생자녀 부모)였으나, 자녀들은 76.65%가 가정에서 양로를 하겠다고 답을 해서 격차를 드러냈다. 계층별로는 주렁허우와 링링허우보다 바링허우의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는 자식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아 부모 부양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향후 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케어(부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독생자녀를 둔 부모의 66.1%가 사구양로(재택양로)를 선택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양로원(기구·기관)은 27.6%, 가정은 6.3%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 부모를 보면 가정 양로를 선택한 비중이 70%로 가장 컸고, 사구양로 23%, 양로원 7%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이는 자녀들에 대한 설문결과 76.65%가 가정양로를 선택한 것과 적합성이 부합하다. 즉 설문대상 자녀 중 70%가 다자녀 가정이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다자녀 가정의 노인 부양 책임은 주로 자녀들에게 부여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부모가 병이 나면 누가 간호할 것이냐는 질문에 독생자녀 가정 부모들은 67.3%가 부모 본인 혹은 배우자로 답했고, 자녀로 꼽은 답은 29.28%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들은 자녀 본인으로 답한 경우가 79.64%로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부모 본인 혹은 배우자는 14.07% 수준이었다. 간병인은 6.29%에 불과했다. 계층별로는 주링허우와 링링허우보다 바링허우의 응답 비율(자녀가 간병)이 낮았다. 이번 질문 역시 자식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11년부터 수정된 1자녀 1가정 가족계획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 중국인구는 중국경제 및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중국 노인 부양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거나, 독생자녀 가정이 두 번째 자녀를 낳지 않을 경우에 노인 부양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서용구·박명현, 『2030 미래에 답이 있다』, 이서원, 2014.  
沈潔 編著, 『中華圈の高齡者福祉と介護—中国・香港・台湾』, ミネルヴァ書房, 2007.  
Wohl, Robert, *The generation of 191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논문>

- 권정호,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와 도시지역 노인복지의 과제」, 『아시아연구』, 13권3호, 2010.10.  
김경환, 「중국 양로시설 시장현황 및 진출전략」, 『중국학연구』, 84권, 2018.06.  
김동하,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과 그 정책적 함의」, 『중국학』, 제37집, 2010.  
김동하·안병국,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3호.  
김동하,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행정단위별 수립 체계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0권4호, 2012.  
김병철, 「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비교: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01.  
김복희·서창배, 「중국 양로서비스시장과 수요공급적 특징분석」, 『중국지역연구』, 19호, 2021.05.  
김상찬, 「중국의 노인부양과 요양간호제도」, 『국제법무』, 10집1호, 2018.05.  
박상수·위엔후이, 「모바일 뱅킹에 대한 중국소비자의 혁신저항에 관한 연구 - 80後세대와 90後世대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2권4호, 2014.10.  
박상수·殷卓君, 「중국사회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67권, 2016.06.

- 박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재구매의도 결정요인: 조링허우(90後)를 대상으로」, 『무역학회지』, 42권1호, 2017.02.
- 송 가·김재환·이상엽, 「중국 바링허우(80後) 이선도시(二線都市) 아파트 선택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1권, 2012.12.
- 양 정·하중경·이영숙, 「중국의 위챗 플랫폼 특성에 따른 패션제품 구매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76집, 2021.07.
- 왕 면·이희승·양웨이웨이, 「중국 바링허우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호텔선택속성 및 충성도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23권3호, 2019.05.
- 윤성환, 「치링허우(70后), 빠링허우(80后), 주링허우(90后)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제품 선택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37권3호, 2018.12.
- 이동훈, 「중국 80後, 90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산짜이(山寨) 문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38집, 2012.01.
- 이성기·원석조, 「중국 농촌양로보험개혁의 과정과 과제」,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2013.
- 이용철, 「상하이(上海) 화이트칼라·바링허우(80後)의 소비행위와 태도: 소비의 사회적 속성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44권2호, 2011.05.
- 이장로·정인식·김미옥, 「소비자 자국중심주의와 적개심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중국'80후(後)'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34권5호, 2009.11.
- 이혜정·모선희,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3호, 2020.
- 진 남·김창경, 「중국 '팡누(房奴)'주거현상의 요인과 특징에 대한 연구-바링허우 세대 팡누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4집, 2010.09.
- 형 요·원재연, 「동북지역출신 바링허우세대에 대한 사례연구」, 『중국학논총』, 49집, 2015.08.
- 홍은실·북미정, 「중국 주링허우 세대 소비자의 역직구 특성분석:상표충성성향과 다양성추구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 분류에 의하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6권4호, 2020.12.
- 刘 静, 「独生子女父母的养老责任观念及影响因素研究」, 学位论文, 山东财经大学, 2022.
- 石浩廷, 「独生子女家庭养老问题的对策研究」, 学位论文, 东北财经大学, 2018.
- David I. Kertzer,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1983.

<기타자료>

- 김동하,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노동법제가 미친 영향력 연구」, 협동연구총서 11-03-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선우덕,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협동연구총서 11-03-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선우덕,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협동연구총서 12-33-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 이소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의 연금제도 개혁방향, CSF전문가포럼, 2022.10.27.

- 이충형, “링링허우(00後) ‘90년대생과도 달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애국 청년들”, 『중앙일보』, 2022.06.24.
- 임상범, 「중국의 미래 주역 지우링허우(90后)」, 성균차이나브리프, 5권1호, 2017.
- 장정재, 「중국 20·30세대 新소비 트렌드와 부산의 대응」, BDI정책포커스, 339호, 부산발전연구원, 2018.6.11.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최근 인구성장세 둔화에 따른 중국정부의 대응」, 현지정보, 2022.02.15.
- 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2.04.08.
- KIEP, 「90后의 주요 소비패턴 특징 및 시사점」, 북경사무소브리핑, Vol.19 No.2. 2016.02.29.
-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大数据中心, <http://rsj.beijing.gov.cn> [2022.12.19.]
- 国家统计局, 「2010年第六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公报」, 2011.04.28. [www.stats.gov.cn/tjsj/tjgb/rkpcgb](http://www.stats.gov.cn/tjsj/tjgb/rkpcgb) [2022.12.16.]
- 华经产业研究院, 「2022-2027年中国养老机构行业市场深度分析及投资战略规划报告」, <https://m.huajing.com/detail/835146.html> [2022.09.10]
- 吕华毅, 「青年自愿者参与公益事业可促进和谐社会的发展」, 北京论坛, 文明的和谐与共同繁荣—为了我们共同的家园：责任与行动, 2010.11.05.
- 刘卓也, “未来十年中国年均2000余万人退休！8万亿养老产业，大厂纷纷入局”，<https://baijiahao.baidu.com/s?id=1751381942258641750&wfr=spider&for=pc> [2022.12.05.]
- 民政部, 「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https://www.mca.gov.cn/article/sj/tjgb/> [2022.12.9.]
- 中国统计出版社, 『中国人口普查年鉴 2020』, 国务院第七次全国人口普查, 2022, [www.stats.gov.cn/tjsj/pcsj/rkpc/7rp/zk/indexch.htm](http://www.stats.gov.cn/tjsj/pcsj/rkpc/7rp/zk/indexch.htm) [2022.12.08.]
- 中国人民大学人口与发展研究中心, ‘中国大学生婚育研讨会’ 2022.4.21. <http://pdsc.ruc.edu.cn/xsdt/62f8669293734f8eab0868663382bd94.htm> [2023.01.12.]
- “中国人的平均退休年龄是多少岁?”, 「华律网」, 2023.01.02, <https://www.66law.cn/laws/872792.aspx> [2023.01.12.]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中国, 老年人, 养老, 老龄化, 人口结构				
Key Words	영문	China, Elderly, Elderly support, Aging, Population structure				
<div><div><div><div><div><div><b>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Support in China between Parents and Children</b></div><div>Kim Dong-Ha</div></div></div><div><div><div><div><div><div>In 2021, China's aging rate (over 65 years of age) was 14.2%, entering an aged society beyond an aging society. Although the birth control policy (one child from one family)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32 years has been converted to a policy to encourage childbirth in 2021, the elderly support rate per 100 working people is soaring to 21.1.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s of parents and children about supporting the elderly were different. 38.45% of parents of single children and 46.35% of parents of non-single children said the elderly was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 but 76.65% of their children cited it as their responsibility. 66.1% of parents with single-child children chose 'SheQu' elderly support(communitiy home-based elderly support), but 70% of parents from multi-child families chose home-c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f you do not have any children or have no second children after marriage, it will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solving the problem of the elderly in China.</div></div></div></div></div></div></div></div></div>						
저 자	김동하 / 金東河 / Kim Dong-H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05.	심 사 일	2023.02.23.	게재확정일	2023.03.20.